

본문 : 야고보서 3 장 1-12 절

제목 : double-minded, double-tonged

1. 아버지 집에 돌아 온 형제(탕자의 형)

누가복음 15 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에게도 형이 있고 제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몰입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의 형도 이야기의 큰 아들처럼 저보다 더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 둘 중에 탕자가 나왔다면 분명 제가 됐어야 할 겁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조건 없는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외로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맺고 있던 관계들은 돈으로 연결된 관계들이었기에 돈이 사라지면서 다 끊기고 말았죠. 둘째 아들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깊이 만나고 싶고, 다시 이어지고 싶은 욕구인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습니다. 해외에 나와 사는 나그네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형은 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환대하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도 미울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환대해주는 아버지는 더 싫었습니다. 굳이 동생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어 보입니다.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들여지기를 바라십니다. 모두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름이 인정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환대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나그네들이 오고 갑니다. 나그네들이 불쑥 찾아 오기 마련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불쑥 찾아 온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따뜻함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 하나님 닮은 사람에게 준 선물, 말

9 절에 보면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도 연결되기 위해 말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사용하셔서 인간과 연결되길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장은 말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Let there be light!”이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가지고 소통하는 존재이고, 말을 사용해서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창세기 1 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구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구약의 지혜서들의 전통을 이어 받은 신약의 지혜서로 불립니다. 특히 잠언에는 말에 관한 잠언이 전체 잠언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야고보서도 언어사용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장의 대부분을 언어 사용에 관해 할애하고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1 장은 서론이면서 마치 나머지 장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는 1 장 26 절에 이미 언급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혀를 다스리는 믿음이라는 내용을 3 장에서 본격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3. 선생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에 관한 지혜를 시작면서 선생되지 말라는 당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선생질이라 부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가르치는 행위를 경계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가르치는 것이 본업인 목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강도가 더 쎈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제국의 이야기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주류

사회의 강력한 제국의 이야기에 휩쓸려 간 사람들을 향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칭 선생들이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선생이라 생각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들과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의 서신들은 모두 이런 시험가운데 놓인 공동체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지혜를 주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생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현명해 보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 장 36-37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언어 사용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 말의 파괴력 (작지만 강하고, 일부이지만 전체를 무너뜨린다)

야고보는 언어사용을 조심하라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말의 파괴력을 언급합니다. 혀는 작지만 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혀는 몸의 일부이지만 몸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야고보의 말은, 언어 사용을 잘못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길들이기 위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이용해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키를 잘 움직여야 하듯,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산불이 낫설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던 시절 산불이 정말 많이 나더군요. 산불 때문에 LA 도시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덮여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산불들은 작은 스파크나 담배꽂초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불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를 합니다. 분유통에 못질 하여 구멍을 송송 내어 ‘화통(불깡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타는 나무가지들을 넣어 돌리면서 불싸움을 합니다. 머리타는 것은 기본이고 벧짚을 쌓아 놓은 짚단도 자주 태웠지요. 어떤 아이들이 던진 불꽃이 산으로 번져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산을 태운다는 이 말을 저는 경험적으로 이해합니다. 혀는 몸의 일부이지만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혀는 작아 보이지만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6 절의 보면 혀가 인생의 수레 바퀴에 불을 지르고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Gehenna 는 심판의 장소를 뜻하는 '힌놈의 골짜기'의 히브리 말 "Ge Hinnom"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람어로 Gehenna 가 되었고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지옥과 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수레바퀴는 'Genesis 의 바퀴'를 번역한 말인데, Genesis 는 '존재, 피조세계, 자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혀가 불질렀다는 표현을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렀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파괴할 만큼 말이 파괴력이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 3 장에 보면, 뱀의 말과 하와의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 장의 사건을 일컬어 Fall, 즉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말에 속아 하와는 남편에게 유혹하는 말을 건넸죠. 말을 통해 피조 세계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말이 그만큼 무섭고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말로 창조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것 또한 뱀과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5.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힘으로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8 절은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혀는 불안정하게 쉽 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혀를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혀를 잘 못 사용하면 맹독이 되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말에도 "혀 아래 독이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악플 하나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입이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자식들에게 해 왔습니다. "나가서 죽어버려라"라는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쉽게 던진 말이 아이의 가슴에 꽂혀 평생 괴롭힙니다. 어떤 분은 동생하고 동네 냇가에서 수영을 하다 그만 동생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니가 대신 죽었어야지..."라는 말이 가슴에 꽂혀 평생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말은 강력할 뿐 아니라 그 수명이 오래 오래 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입술의 30 초, 가슴에 30 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 뱀어진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 지를 알려주는 말이지요. 어린 시절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놈아~" 이런 말을 들었던 아이는 평생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큼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강력하지만, 나쁜 말도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입을 샘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가지고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할 수도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모순이 벌어진다는 말인 것이죠. 저주하다는 헬라말의 원래 뜻은 '저 멀리 보내버리다, 제거하다 (Put away, remove)'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의 Eu 와 '말'을 뜻하는 Logos 가 합쳐진 말 Eulogeo 라는 말의 명사형태인 Eulogia 입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할 수 있지만 한 입으로 형제 자매를 파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한 샘에서 쓴 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몸에 두 샘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입 주변으로 세 쌍의 총 6 개의 침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그렇게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 장 8 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온전함과 반대되는 나뉜 마음을 야고보는 언급한 적 있죠.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8 절). 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그 독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듯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두 개의 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 장 8 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한 입에서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말이 동시에 나오지 않도록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부탁이지요.

6. 말은 그대로 우리에게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Eulogia 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좋다와 말이 합쳐진 말로, 찬양, 칭찬, 축복, 선물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바로 칭찬과 축복과 선물을 뜻하는 율로기아입니다. 어떤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선물이 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와 동료들에게 내 뱉은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나요? 잠언 18 장 21 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내가 뱉은 말이 열매가 되어 그대로 추수하게 된다는 말 아닌가요? 시편 109 편 17-18 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축복의 말은 축복으로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주의 말도 물론 나에게 저주가 되어 부메랑처럼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요. 얼마나 말의 사용이 중요한 지 우리는 놓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7. 공동체를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의 저주 되신 축복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선물이 되는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율로기아의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게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11 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온전해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그 시작은 우리의 말이 성숙해지는 것에서부터 입니다. 에베소서 4 장 29 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는 말들은 모두 어린 아이들의 말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이죠. 바울은 어린 아이와 반대되는 말의 습관을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이라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혀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double-minded 는 the double-tonged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게 유지 되어 있는지 마음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짠 샘에서 짠

물이 나오고, 단 샘에서 단 물이 나오는 법이니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double-minded"라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즐거워 하는 것을 추구해 갈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의 혀도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나가는 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치들은 공동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 지혜로 언어사용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좋지 않은 말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으니, 입술을 잘 길들이고 좋은 언어 습관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율로기아의 언어습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찬양과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통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살피고 성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말은 입에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